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2) 무지에서 벗어나기

“인과의 그물망을 주의 기울여 폭넓게 보세요”

연기와 현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황의 실제, 즉 그것의 상호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 국제정치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상대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폭넓은 시각이 없으면 의도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황을 처리하려는 모든 노력이 현실성을 잃고 만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감각을 잃기 때문이다. 해로운 마음으로 인한 가장 큰 해악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상황에 대해 큰 그림을 보아야 할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거진 관점은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면 그것의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탐욕이 일어난다. 분노나 성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돼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크게 불편해진다.

어떤 심리치료가사 내게 해 준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화를 낼 때 그 대상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중 90퍼센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과장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과장된 생각의 작용으로 인해 대상이 극도로 나쁘게, 혹은 극도로 좋게 보이고 그로 인해 왜곡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모든 현상을 연거진으로 볼 수 있다면, 즉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에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왜곡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만일 '꽃' 이 보이는 그대로 진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꽃의 속성이나 부분과는 별개의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꽃이라는 실체는 분석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과학적 수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다. 꽃은 실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꽃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것은 결코 찾을 수 없다.

만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고 분명히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고 실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면 어떤 중생도 보살도 부처도, 순수한 것도 순수하지 않은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해탈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공에 대해 명상할 이유도 없게 된다.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며, 즐거움과 고통이 존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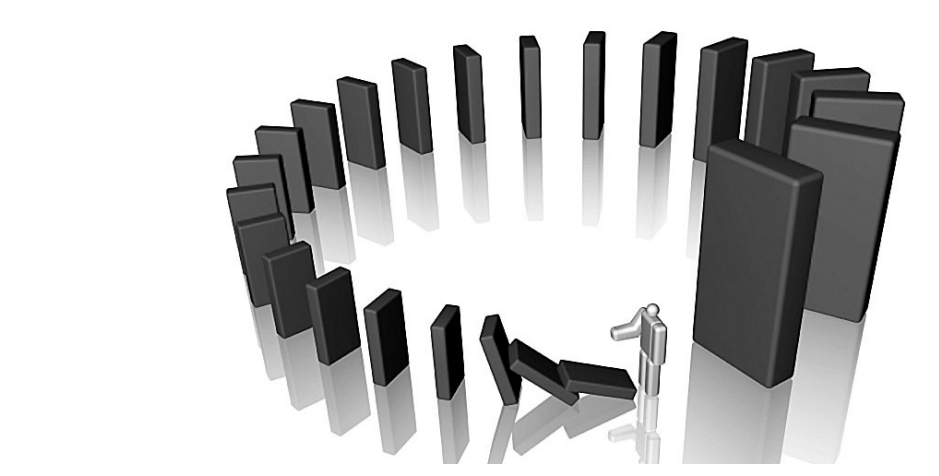
나가르주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나가르주나는 '공하다'는 것이 '현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 일어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현상의 연거진 속성 이해하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원인과 결과, 이것과 저것 등의 모든 현상은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존해서 일어나고 형성된다.

나가르주나는 (보행왕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난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는 이치와 같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불꽃에서 빛이 생겨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연거진 맥락에서 서로 돕고 해치는 일이 일어나고, 무상한 현상이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업과 그 결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결코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우리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현상이 스스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겨남을 보고 세상의 관습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허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극단, 즉 현상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상주론)이나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단멸론)은 모두 깊은 나락과도 같다. 그 같은 생각은 대상의 상태를 실제로 파악하거나 아니하면 인과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그릇된 관점을 갖게 한다. 상주론의 나락에 떨어지면 실제 모습 이상의 자



연거진 조건의 그물망 이해 못하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로운 마음 생겨 현실감각 잃는다

인과 못 보면 있는 그대로 못보고

대상에 대한 탐욕과 성냄 일어나

기 모습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단멸론의 나락에 떨어지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에 해가 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연기와 공의 균형을 맞추려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과 '연거진으로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교의 위대한 현자들이 공의 원리를 가르칠 때 '현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현상은 연기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고, 즉 자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을 이해하면 양극단을 모두 피할 수 있다. 공을 깨달음으로써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을 피할 수 있고, 현상이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현상의 작용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공으로부터 연기를 추론하기

연기를 이해하면 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을 이해하면 연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로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공하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쉬운 것 같다. 세상이 본래 고정불변한 실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라면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나무와 잎과 열매 같은 특성들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환경이 나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겨울이 되어도 잎과 열매라는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나무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환경에 따라 그 특성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참'인 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지만 '거짓'인 것은 무엇으로든 될 수 있다. 거짓 안에서는 얼마든지 상반되는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무식했던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학자가 될 수도 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모든 현상이 무상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젊은이가 노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어떤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다시 텅 비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국가가 생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선과 악, 성장과 쇠퇴, 윤회와 열반 등 변화는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이처럼 변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가 가능해지고 연기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떤 현상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다른 요인들에 의존할 수 없다. 다른 요인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연기는 가능하지 않다.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좋은 연인을 지음으로써 행복이라는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나쁜 원인을 짓지 않으므로써 고통이라는 나쁜 과보를 피할 수 있다.

명상의 특별한 대상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정신적인 지도자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고 그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영향을 생각해 보면 원인과 결과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공을 완전히 이해하면 해로운 마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가 고삐에 매여 끌려가듯 이 해로운 마음의 굴레에 얽매인 채 생을 거듭하며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때로는 그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변할까 생각하면 연기와 공 모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상의 본질임을 알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한다. 색이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 공이다. 공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처럼 여분의 것이 아니라 색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다. 티베트의 현자 총카파는 〈보적경〉 가섭장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공이 현상을 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가 공하다."

일번 전총 라다크에 갔을 때, 〈이만오천송 반야경〉에서 비슷한 구절을 발견했다. "색은 공으로 인해 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색 자체가 공하다."

나는 이 심오한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그대 내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다소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우선 사물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불교 내의 대부분 종파에서도 타자나 의지, 몸 같은 대상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물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타자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타자를 파악하는 시각적 인식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식이 타당하면서 동시에 오류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가장 심오한 설명을 한다는 귀류논증과, 즉 찬드라키르티를 따르는 중도파에 따르면, 타자나 의지, 몸 같은 모든 현상들은 분명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적 인식은 어떤 대상이 있음을 본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이런 면에서 인식은 옳을 수도 있고 동시에 틀릴 수도 있다. 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는 점에서는 옳지만 그 대상이 자신만의 고유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잘못인 것이다.

찬드라키르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인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색 자체가 공한 것이지, 공에 의해서 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이 공하다는 것인가? 색 자체다. 타자 자체이고 몸 자체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은 마음이 만들어 낸 어떤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처음부터 공했다. 색과 공은 하나이며 별개의 실체로 구분할 수 없다. 정리는 아니라 기자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한옥 38평
- 법회하고 있음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0-3381-08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입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사찰 임대 및 양도

- 위치 :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천태산 칠불사
- 평수 : 대지 230평
- 법당 : 30평, 현대식 요사채 및 방 5칸, 공양간 15평
- 임대전세 : 1,0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절충가능

스님직통 : 010-2055-3366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부,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부
-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용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목판 오시면 뒀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1-895-2258

사찰 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함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절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용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관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형산새마을금고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